

사순 제5주일(2018년 3월 18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본당 창립 27주년 기념 미사입니다. 27년 전 이 체리힐 한인 성당을 처음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27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봉헌하시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매주 미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축하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이 공동체에 늘 함께 하길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27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27년 동안이나 유지해온 우리 공동체, 이제는 뭔가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주일 미사 50명을 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무금, House of Charity 내는 분들보다 안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 아닙니다.

서로 화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인사도 잘 안합니다. 내편 니편 갈라져서 서로 잘 쳐다도 안봅니다. 말도 서로 잘 안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담당하는 신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평협회 임원들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다 평화와 화합을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늘 평화를 깨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행동은 같이 망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왔으니까 이제 어느덧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우리 공동체 화합하기 참 힘든 공동체라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만 많습니다.

자, 지나간 이야기는 이제 접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지난 이야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 지난 이야기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지나간 일들 잘잘못 따지기

보다, 새출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올 2018년 사목 목표 알려 드렸지요. 유인물로 다 나누어 드렸고 함께 읽고, 앞으로 잘 하자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성당을 잘 안 나오니까 모르시죠? 2018년 “본당 쇄신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두 달 사이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전히 같길い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만 살때는 몰랐는데,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잘 보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오 천년의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지켜온 아주 강하고 뿌리가 깊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오 천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버티고 살아온 그 배타성과 고집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절대 지지않고 양보하거나 화해하지 않습니다. 내편 니편 갈라 놓고, 높은 벽과 담을 쌓아 놓고, 다른 편 한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편한테는 정말 잘 합니다. 근데, 내 편이 아니라고 한 번 선을 그어 놓은 사람들과는 절대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배타성과 고집. 장난 아닙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반도 국가의 국민들이 갖는 특징이라고. 지정학적 요충지인 반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늘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침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높은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그렇습니다. 팔레스티나의 반도에 자리잡고 있어서 늘 핍박받고 살았죠.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고집세고 강인합니다. 한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죠. 늘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당파 싸움으로 늘 편갈라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서로 다 잘 나서. 니편 내편 갈라놓고 우리 편만 잘 살잘고... 결국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고 또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가톨릭의 가장 큰 영성 중에 하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제발 좀 바뀔시다. 제가 올해 사목 목표 발표하면서 몇 가지 실천 사항 이야기 했었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적 성장과 신앙 성숙에 집중하면서,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죠. 주일 미사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평일 미사도 되도록 자주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 주일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성체 조배를 하고 성체 강복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릅니다. 성체가 앞에 있는데도, 돌아다니고 말하고 떠듭니다. 좀 늦었으면 빨리 들어오셔서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밖에 홀에서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다 들립니다. 성당에서 다들 기도하고 있으면 발 소리 내지 말고 좀 조용히 걸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뚜벅 뚜벅 그냥 걸어들어 옵니다. 성체 조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다리 꼬고 팔짱끼고 앉아서 주보 읽고, 핸드폰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당에 왜 오시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지켰으면 합니다. 신앙 생활의 기본기 부터 좀 지킵시다. 소리 높여서 불평하기 보다, 제발 먼저 기도부터 좀 합시다. 착실하고 진지한 신앙인의 기본 자세부터 좀 갖추었으면 합니다. 수요 기도 모임 있는 거 아시죠? 기도 회장님과 총무님, 기도 회원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 좀 나오세요. 제발. 함께 기도 좀 합시다. 기도를 해야 성당이 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안되었던 이유. 기도를 안했었습니다.

신부가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평협회 임원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기도 안하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치유미사 있습니다. 제발 좀 오세요.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 줍시다. 그리고 좀 있으면,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제발 좀 나오세요.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묵상할 줄도 모르면서, 신앙 생활이 별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제발 오셔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합시다. 쓸데 없는 일에 간섭하고, 남 흉이나 보지 말고, 조용히 기도 부터 합시다. 저녁 7시 30분 입니다. 그 시간에 뭐 일하느라 바쁘십니까?

다음 주 성주간 동안에,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성삼일 전례, 일 년 중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는 전례입니다. 제발 좀 오세요. 저녁 8시 부터 입니다. 밤 8시에 급하게 불일이

많으십니까? 성당에서 하는 여러가지 활동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기도하고 신앙 생활 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사순 시기도 어느덧 5 주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성주간이 시작되고 그러면 곧 부활입니다. 언제나 똑같이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는 사순 시기, 그래서 그냥 연례 행사로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진짜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 그래서 희망과 믿음이 가득한 축복된 부활을 맞이 했으면 합니다. 진짜 부활을 마음 속 깊이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안됩니다. 왜? 꿀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맘대로 잘 안되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듯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저 밀 알 한 알 그대로 남을 뿐이고, 죽어야만 비로서 열매를 맺는다.”

이기심과 편견, 고집, 인정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은 욕심, 대접 받고 싶은 교만, 끝없는 질투와 시기, 그냥 괜히 알수 없이 터져나오는 분노,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죽여야만, 하느님의 은총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부활의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참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